

<교사 이야기 마당>

##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한다

바야흐로 학생인권조례의 시대입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고, 서울에서도 체벌금지 조치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얘기된 것처럼 ‘대한민국 학교 \*까라 그래!’의 현상이었던 학교가 드디어 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로 새 기운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과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흠집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다는 등,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막장 교실이 되고있다는 등, 지금까지 입시경쟁 교육에 찌든 우리 교육의 모순으로 인한 상처가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의 규정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전면 일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그 대안인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늘 ‘학교’에 대한 묘사가 있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학교’의 모습 속에는 진짜 학생과 진짜 교사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과거보다 더 불행해졌는지, 학교가 더 불안해졌는지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새로운 기운 속에서 학생과 교사가 더불어 존중받고 인권의 공기로 숨쉬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드는 길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학교를 희망하는 많은 선생님들, 저들이 만들어놓은 경쟁교육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교사-학생들을 더욱더 우롱하는 언론보도에 분노하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월16일 (수) 저녁 5시

장소 : 흥사단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 외 32개단체)

### <순서>

여는 인사말 : 왜 교사가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1부 : 현장에서 말한다. -----진행 : 조영선 (경인고)

김수현 (경기 충현고) - ‘못된 남학생 vs 약한 여교사’의 싸움인가?

이기규 (서울 수송초) - 체벌 금지 이후 초등은?

김현석 (서울 당산서중) - 나는 왜 매를 놓게 되었나?

권기승 (서울 용산공고) 또는 이성주- 실업계는 매가 필요하다?

조영선 (서울 경인고) - 진짜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2부 : 길을 말한다. -----진행 : 조영선 (경인고)

백원석(경기 장곡중)- 수업혁신도 존중의 생활지도로부터

이만수(경기 흥덕고)- ‘방해자’ 70%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이용석 (경기 원종고)- 생활지도부가 앞장선 인권존중  
임동현 (광주 전자 공고)- 실업계 아이들일 수록 존중부터 시작한다.  
이재익 (경북 )- 약육강식의 학교문화에서 존중으로 살아남기  
정경수 (경기 유신고 )- 학교별로 생활규정이 달라진다면

3부 : 함께 말하다-----진행: 김영삼 질의 응답 및 청중 토론

<실무 분담>

1. 본부의 수부 섭외 및 보도자료 배포 요청, 플랭카드, 간식 : 전교조 서울지부

###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일시 : 2월16일 (수) 저녁 5시

장소 : 홍사단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홍사단교육운동본부 외 32개단체)

2. 언론에 줄 자료 : 충실한 속기 + 2부 길을 말하다 부분 참고 자료 수합 - 조영선
3. 패널 연락 : 조영선
4. 속기는 김행수, 윤근혁에게 전달하여 기고
5. 장소 : 1안-홍사단 2안 -서울시의회 3안-정동프란치스코 회관 : 김영삼
6. 패널 이름표, 참고자료 복사 - 권복희(홍사단) -연락: 김영삼
7. 웹자보 : 다산인권센터
8. 청중 홍보 : 전교조 서울지부, 경기지부

<1부, 2부 질문>

1부 :

지금 학생인권조례 또는 체벌 금지 조치 이후 그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많은 부분 언론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떠셨나요?

2부

1)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다른 분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려고 시도하신 분들로서 한말씀 해주신다면요 .

2)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단순히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만은 아닐텐데요. 동반 되어야 할 조치들이 있어야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요?